

수능 예비소집일 수험표 수령 필수

도교육청, 2023학년도 대입 수능시험 유의사항 안내 코로나19 확진자 직계가족 등 통해 대리수령 가능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오는 17일 치러지는 2023학년도 대학수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수험생들은 수능 하루 전인 16일 예비소집일에 참석해 수험표를 수령하고, 시험장 안내 등을 받아야 한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인 수험생의 경우 직계가족이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등을 통해 수험표 대리수령 가능하다.

수험표를 분실했을 때는 응시원서와 동일한 사진 1장을 지참한 후 시험 당일 시험장의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수능 당일 오전 6시 30분부터 시험장 출입이 가능하고, 수험생은 오전 8

시 10분까지 시험실 입실을 완료해야 한다.

다음으로, 방역을 위해 모든 수험생은 입실 전 발열체크 등을 거쳐야 한다. KF94 등급 이상의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며,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하는 확진 수험생의 경우에는 반드시 KF94 등급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지난해 수능과 동일하게 점심 시간에는 종이컵음식을 배부받아 식사를 해야 한다. 식사가 끝나면 마스크를 상자에 직접 투입하면 된다.

이와 함께 방역을 위한 시험실 환기 등으로 체온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보온과 방한 효과가 있는 복장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권장했다.

특히 수능시험 당일에는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이외에 결제·통신기능(블루투스)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가 없는 아날로그 시계와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사프신, 마스크 등은 시험 중 휴대할 수 있다.

반면 휴대전화, 스마트기기,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태블릿PC, 카메라 렌,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 등이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소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약 시험장에 갖고 들어왔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4교시 탐구 영역 시간은 부정행위로 적발되는 사례가 가장 많은 점도 유의해야 한다.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수험생은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순서

대로 응시하고, 해당 선택과목의 문제지만 올려두고 풀어야 한다.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순서를 바꿔 풀거나 본인이 선택한 다른 과목 문제를 동시에 올려두고 풀면 부정행위로 간주돼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주현화 학교교육과정장은 “예비소집일에 반드시 참석해서 수험표를 수령하고, 시험장의 위치와 각종 안내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으니 감염에 특별히 주의하고 건강관리에 힘써 최상의 컨디션으로 수능 시험을 치러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1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3학년도 대학수능시험은 17일 8시 40분부터 17시 45분까지 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 등 도내 6개 시험지구 총 70개 시험장(별도/병원시험장 포함)에서 치러진다. 응시원원은 전년보다 180명 감소한 1만7,100명이다. /정은성 기자

승마운동 게임 개발 ‘최우수’

전북대 바이오메디컬 학부생들, 정기 학술대회서 대학 창업지원 통해 실제 게임 개발 중... 창업도 준비

전북대학교 바이오메디컬공학부 학부생들이 최근 한국재활복지공학회 주최로 열린 제16회 정기 학술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1~12일 양일 간 열린 이 대회는 재활 복지공학을 전공하는 학부생들의 다양한 연구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우수 연구를 시상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2개 대학에서 28팀이 참가했다. 전북대 바이오메디컬공학부는 최수영, 신연석, 최지현 학생(지도교수 권대규)은 ‘승마 운동 시 상지 운동을 위한 Kinect Sensor 기반 게임 개발’이라는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연구는 하지 및 코어 밸런스(Core-balance) 강화에 집중돼 있는 실내용 승마 운동기구에 상지 운동을 결합해 정신 운동의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Kinect Sensor 기반의 게임 개발에 관한 것이다.

특히 이 학생들은 전북대학교 J-NBIT 창업동아리 지원사업을 통해 게임 개발을 지원받고 있어 성과가 주목된다. /정은성 기자



지도교수인 권대규 교수(왼쪽) 바이오메디컬공학부(오른쪽)는 “학생 스스로 우수한 아이디어를 연구로 승화되고, 이를 창업으로 이어가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며 “좋은 연구 성과가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나아가 특화 분야인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은성 기자

“정부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 법안 반대”

교부금 교육감 특위 국회사 입장문 발표

“유초중등·대학 교육 함께 성장할 투자 필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교육감 특별위원회(이하 교부금 교육감 특위)는 15일 국회 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고등교육특별회계 법안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재정 당국과 교육부는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되던 국세 교육세 3.6조를 대학 및 평생교육에 지원하고자 하는 고등교육특별회계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교부금 교육감 특위가 발표한 입장문의 주요 내용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 위한 국회의 능동적인 역할 촉구 △재정 당국과 교육부는 유·초·중등 학부 및 교육감협의회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 △미래교육의 수요를 반영해 보다 적극적인 예산 투자 필요 △고등교육 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 등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교육감 특별위원회(이하 교부금 교육감 특위)’는 15일 국회 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고등교육특별회계 법안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9월 22일 대구에서 열린 총회 결의를 통해 김지철 충남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

는 교부금 교육감 특위를 구성, 재정 당국과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등교육특별회계 법안에 대해 대응 방안을 모색

해 오고 있다. 교부금 교육감 특위는 충남, 울산, 경기, 세종, 충북, 전북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정은성 기자

에코시티 내 학교 설립부지, 주차장 활용

설립 전까지... 지역주민 주차 어려움 해소 위해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에코시티 내 고등학교 이전·신설 예정부지 일부를 올 연말까지 주차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확보된 학교 설립 용지가 오는 2025년쯤 착공 예정됨에 따라 학교 부지(전주 송천동 2가 1302번지) 일부(1,176㎡)에 주차장을 조성해 유휴부지의 효율적 관리 및 지역주민들의 주차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그간 해당 부지는 적치된 생활 쓰레

기와 잡풀 관리 등으로 2,200여만 원이 소요됐고, 또 아파트 주민들이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민원이 많이 제기됐기에 김병지 전북도의회 교육위원

장을 비롯한 도교육청과 전주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뤄졌다.

서거석 교육감은 “에코시티 내 부지가 도교육청과 10km 이상 떨어져 있어 효율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의미에서 학교가 설립되기 전까지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관광분야 취업 정보 ‘여기에’

전주대 문화관광대학
23일 취업 컨설팅 박람회
르메르디앙 호텔 명동
더드림버스 등 기업들 참여
학부모 특별 행사도 마련



전주대학교 문화관광대학은 취업 컨설팅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박람회는 23일 열린다. <사진=전주대학교 제공>

형 취업 컨설팅과 멘토링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박람회에서는 학부모를 위한 특별한 행사도 마련됐다.

2023학년도 신입학 수시전형 합격자 학부모를 위한 ‘나의 자녀 대학 생활 미리보기’ 프로그램은 문화관광대학의 5개 학과의 교육이념 및 교육과정 등에 대한 소개와 각 학과 실습실 부어를 통해 자녀의 학교생활을 미리 엿볼 수 있도록 준비했다.

또한 ‘학부모 초청 공개수업’도 진행된다.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총 14회에 걸쳐 관광경영, 패션산업, 한식조리, 호텔경영학과 등의 수업 현장을 직접 참관하는 오픈 클래스(Open Class)도 마련했다.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준비한 심영국 학장은 “이번 행사는 우리 문화관광대학생들의 취업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한 것”이라며 “4학년 학생들에게는 기업에서 직접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3학년 학생들은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더불어 재학생 및 예비 신입생과 학부모님들에게는 우리 대학의 현재 활동과 비전을 자신 있게 보여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문화관광대학 초청 설명회 및 공개수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구글 설문(https://forms.gle/t8N1JAV2mBbfn8) 링크를 통해 사전 신청 가능하다. /정은성 기자

2023학년도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설명회 오늘까지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2월 9일까지 방과후학교 업무담당자와 초·중학교장 등을 대상으로 2023학년도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내년도 방과후학교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운영 지침 준수 등 업무 역량 향상과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먼저, 15~16일에는 도교육청 창조미래 시청각실에서 초·중학교 교장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한다.

또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은 오는 17일부터 12월 9일까지 교감, 행정실장, 방과후학교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방과후학교 운영비 확대 지원 △방과후학교 업무 최적화 △청렴 서약서·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 등 청렴도 강화 장치 마련 △방과후학교 강사 공모 기간 재조정 등이다.

특히 프로그램별 강사 계약 전에 상범 죄·이동학대 관련 범죄 전적 조사가 반드시 선행돼야 하며, 자연재난 및 사회 재난시 원격 프로그램으로 전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앞서 서거석 교육감은 전라회의를 통해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학교 현장에서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자질 부족에 대한 학부모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내실있는 방과후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강사 채용 절차를 꼼꼼히 진행해달라”고 강조했다. /정은성 기자

“학생·교사·학부모 고통 유발 입시경쟁제도 근본 대책 절실”

전교조 전북지부 “학교교육과정 운영 왜곡 수능 제도 탓 제기... 역량중심 교육과정·고교학점제, 수능 제도 탓 제기 못해”

전교조 전북지부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들의 고통을 유발하고 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왜곡하는 수능 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사회적 움직임을 지지하고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또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은 오는 17일부터 12월 9일까지 교감, 행정실장, 방과후학교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방과후학교 운영비 확대 지원 △방과후학교 업무 최적화 △청렴 서약서·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 등 청렴도 강화 장치 마련 △방과후학교 강사 공모 기간 재조정 등이다.

특히 프로그램별 강사 계약 전에 상범 죄·이동학대 관련 범죄 전적 조사가 반드시 선행돼야 하며, 자연재난 및 사회 재난시 원격 프로그램으로 전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앞서 서거석 교육감은 전라회의를 통해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학교 현장에서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자질 부족에 대한 학부모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내실있는 방과후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강사 채용 절차를 꼼꼼히 진행해달라”고 강조했다. /정은성 기자

한으로 전 조합원들과의 토론을 거쳐 마련한 ‘대학사설 해체, 대입제도 개혁안’을 지난 10월 11일 발표하고 국가교육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다. 또한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지치를 위한 시민연대’, ‘공공성강화 전북교육네트워크’와 함께 10월 25일 토론회를 열어 입시 중심 교육이 고교현장에 끼치는 폐해를 살펴보고 전교조 개혁안과 지역대학 상황평준화 방안을 다양한 교육유족들과 함께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능은 교사에게도 고통이라고 밝혔다. 수능을 준비하고 진행하기 위한 수십 개의 공문이 학교로 쏟아지고 업무가 교사들에게 전가된다. 대학 관계자도 아닌 교사가 대입 시험인 수능 원서 접수에서부터 감독·진행의 업무가 찾아오면 실수라도 하면 징계까지 받아야 한다는 것.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날 논평을 통해 “학생·교사·학부모 모두의 고통으로 접합돼 있는 현실을 깨고자 수능 제도 폐지와 대입 체제 개편, 대학 서열 해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정은성 기자